

우리말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풀어 보는 우리말 달인!

생활 속 틀리기 쉬운 우리말을 찾아라!
팔호 속 두 표현 중 맞는 것은?

1.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김치찌개) 먹을까?
! 김치찌개 ! 김치찌개
2. 김치는 직접 (담가/담귀) 먹는 것이 제맛이지.
! 담가 ! 담귀
3. 그 사람 성격은 정말 (별로/별루)야.
! 별로 ! 별루
4. 텔레비전을 보다가 (금새/금세) 잠이 들어 버렸네.
! 금새 ! 금세
5. 아줌마, 여기 짜장면 (곱빼기/곱배기) 한 그릇 주세요!
! 곱빼기 ! 곱배기
6. 오이를 썰다가 칼에 손을 (비았어/베었어).
! 비았어 ! 베었어
7. 그렇게 조그만 일에 (삐치다니/뽀치다니) 큰일을 못할 사람일세.
! 삐치다니 ! 뽀치다니
8. 귀여운 우리 (애기/아기) 잘도 잔다.
! 애기 ! 아기



우리말 다듬기 문제

9. 홈페이지(home page)는 어떻게 다듬어졌을까요?
! 두꺼비집 ! 누리집
10. 웰빙(well-being)은 어떻게 다듬어졌을까요?
! 참살이 ! 잇살이

퀴즈를 풀고 위의 도장을 사진 찍어 국립국어원 페이스북 urimal365 담벼락에 올려주세요.
선착순 109분께 커피 상자를 보내 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침표, 마침표.>에서 매달 우리말 퀴즈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알쏭달쏭한 우리말을 퀴즈로 배우는 유익한 꼭지인데요, 그 퀴즈 중 톡톡 튀는 문제들을 추려 보았습니다. 퀴즈를 풀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사진 찍어 국립국어원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려 주세요. 선착순 109분께 커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 페이스북에 도착한 친구들의 한글날 축하 인사도 함께 만나 보세요.

www.facebook.com/urimal365

한글아, 축하해. 고마워!



김덕신 한글날 566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 과학적인 문자라는 찬사를 듣는 한글. 우리의 자랑, 한글 축하합니다!

박진우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잘 가꾸고, 널리 알리자!

Mijeong Ryoo 한글, 오래오래 꼭 만수무강하시라!

리창수 이제 우리말에도 마음을 쓰면 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전찬우 세계 제일의 문자, 우리의 보배 한글 한글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요한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 한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연상이신 '한글'님 566돌을 축하드립니다!

Minwoo Brian Kim 자랑스러운 한글의 566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름다운 우리말·글이 세계 곳곳에 알려져 그 뜻이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Youngmi So 한글의 566돌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글 한글, 한국어 많이 사랑할게요!

김성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희, 한글! 566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루빨리 한글날의 공휴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글날을 제외하다나.....

김나연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한글은 더없이 소중한 문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준 한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훈 갑자기 네가 없다고 생각해 봐. 음..... 세상이 캄캄해질 거야.

너는 내가 너무 급하지 않게 침표로 쉬게 해 주고, 내 마음을 마침표로 정리해 주지.

고마워! 한글.

김도광 한글아, 566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주변 외국인 친구들이 나와 친해지기 위해 나에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참 뿌듯함을 느낀다.

요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래어 친구 때문에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뒤에는 함께 이따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힘 내!

한글아, 다시 한 번 566돌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계속 다치지 말고 세계를 향해 무럭무럭 자라 주렴!

Dorgjo Kim 나이 먹어 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글날이 왔는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되는군요! 한글 566돌, 축하합니다!

김영근 한글날은 우리 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 운명인가 봅니다.

Yun Yeojin 한글처럼 아름다운 문자는 없습니다. 한글이 세상에 태어나 줘서 기쁩니다!

한글의 566돌, 마음속 가득 축하합니다.

고수정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SeungDeok Benedict Heo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한글이 우리 곁에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Kim Yongil 역시 한글날을 공휴일로!

권은기 한글! 감사합니다.

한글 함께 누리자

- 2' 명사 축하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4' 한글날 기획 기사 한국어, '세종학당'을 통해 날개를 달다
- 6' 한글, 고맙습니다
- 8' 전문가의 말 모든 것의 뿌리, 말과 글
- 10' 말과 글, 세상을 움직인다 국어학자 주시경
- 11' 조선어학회 수난의 문화사적 의미
- 12' 한글로 전해지는 감동, 문인을 만나다
- 14'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보어 사랑 이야기
- 16'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는 질문, 여기다 모였어요!
- 18' 연표로 보는 우리의 말과 글, 그 찬란한 역사
- 20' 다시 풀어 보는 우리말 달인 우리말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의 축하 한글아, 축하해. 고마워!

멋글씨! 김성민 566(Seo)calligraphy(세)나눔(566)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침표, 마침표.에서 보실 수 있으며 저작권 및 초상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 발행월 2012년 10월 | 발행처 국립국어원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침표, 마침표,누리집 news.korean.go.kr/online | 블로그 blog.naver.com/urimal365.do | 페이스북 www.facebook.com/urimal365
 트위터 twitter.com/urimal365 | 문의 02-2669-9775 | 기획 정희원, 위진, 권현실 | 제작 채널원투원(031-719-9324) | 편집 김수정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566돌 한글날을 축하하는 편지가 각계각층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민현식 국립국어원장님, 한글 홍보 대사 장혁 님과 신세경 님께서 한글날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시는 이자스민 의원님,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데에 앞장서는 서경덕 교수님, 바른 말 쓰기에 모범이 되는 엄지인 아나운서, 섬세한 노랫말로 감동을 선사하는 성시경 님, 정겨운 사투리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 서인국 님도 축하 인사를 건네 주셨어요. 또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정병헌 창립준비위원장님, 한글의 의미와 역사를 연구하시는 송철의 국어학회장님, 한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숙 국제한국어교육학회장님도 축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글을 사랑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입니다.

2012년 '한글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반포하신 지 오백예순여섯 돌이 되는 날입니다. 한글날은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한글은 창제자, 창제 이념, 그리고 창제 원리가 명확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문자 중에서도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우수한 문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한글로 충분히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한글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지만 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한글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찬란한 문화유산을 물려주신 세종대왕의 창조와 애민의 정신, 실용과 과학의 정신을 받드는 데 더욱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선수단은 런던 올림픽에서 종합 순위 5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

큼 한국어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언어가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어 교육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 걸쳐 45만여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으며, 올해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땅에서 우리말과 우리 글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언어와 문자, 필요 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심하게 훼손된 인터넷 문자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말과 글은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도구입니다. 사고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문화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풍부하고 윤택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가꿔 나가는 데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 또한 힘 올 다하겠습니다. 공공 기관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바로잡고 한글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일도 세종학당재단의 출범과 더불어 그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하겠습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동

시에 문화 강국을 이루는 핵심 원천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 애호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5천 년 역사가 축적된 문화와, 창의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한국어를 알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세계 여러 분들의 삶 가까이에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유엔 인구 통계에서 남북한의 인구를 합하면 약 7,300만 명인데, 이는 세계 19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분단에 따른 남북 언어의 이질화, 재외 동포의 모국어 문제, 다문화 가정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한글날이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한글날을 경축하며 국내외 동포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철의
국어학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한글 창제의 근본정신은 '국민^민을 사랑하는 마음^{愛民}'과 '국민^民을 편하게 하려는 마음^{便民}'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우리는 부단히 국민들의 애문 생활을 편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이 관련 학술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 창조물인 한글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엄지인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우리말 겨루기' 진행자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킨 뒤 우리 문화는 세계 곳곳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류 거품'이란 말도 나왔고, 더 이상의 한류는 없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2의 한류, 제3의 한류로 세계 심장부에서 우리 문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힘, 우리 문화의 힘의 원천은 어디일까요? 단연 우리글,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 한글날을 맞아, 이제는 드라마, 음악뿐 아니라 한글의 맛을 세계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정한 한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566돌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잊은 저는 우리 한글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세계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 한글 알리기 시리즈 광고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에 한글 안내서도 비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쪼록 우리 한글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우리의 문화를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는 데 큰 몫을 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이번 한글날이 한글과 한국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글의 기적, 한강의 기적 21세기를 한국어의 세기로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한글은 세계 문자사에서 기적으로 불린다. 로마자나 한자 등 대부분의 문자와 달리 한글은 누가 언제 어떤 원리와 동기로 만들었는지 밝혀져 있지 때문이다.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고 모음자는 천지인^{天地人}을 상형하였으며, 받침은 초성자를 재활용해 경제적으로 만들었으니 한글은 창제 원리의 과학성, 체계성, 경제성과 학습의 용이성, 효율성, 실용성에서 뛰어나다. 세종이 <훈민정음> 서문에서 밝힌 자주, 소통, 실용의 창제 정신도 감동적이다. 사대^{事大} 외교 상황에서 우리말이 중국과 다름을 밝힌 자주 정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애민 정신,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만든 실용 정신이 담긴 <훈민정음> 서문은 한민족의 '문화 독립 선언'으로, 여기에 담긴 정신은 개인 삶의 원리로서나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 철학으로 불멸의 가르침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글의 창제 정신은 한문에 눌리고 일제 식민 통치

이자스민
국회의원, 새누리당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접한 것은 한국에 오기 전인 19년 전, 연애하던 남편이 건네 준 한글 교과서를 통해서였습니다. 덕분에 처음 온 서울의 간판을 읽을 수 있어서 신기하고 설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뜻은 몰랐지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고, 그 이후 한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문자입니다. 문자가 없는 민족이나 보다 쉬운 표기 방법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저의 힘도 보태겠습니다.

정병헌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글 있음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글자를 가지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그 글자가 세계 어느 글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사실 앞에서 먼저 마음이 여유로워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한글을 남겨 주신 세종대왕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말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한 군주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라 잃은 암울했던 시절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목숨을 내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더 갈고 다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한글 있음에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미래가 풍요로워집니다.

에 눌러 제대로 꽃피지 못하였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과 글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른 것이 불과 70여 년 전이다. 이런 암흑 속에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조선어학회' 1921을 만들고 '조선어사전편찬회' 1929를 발족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⁹³³을 하면서 국어사전 편찬을 진행한 것은 민족의 혼을 지키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해체시키려고 1942년 10월 회원 33인을 체포하여 형무소에서 갖은 고문을 다하였으나 국어학자들은 목숨을 바쳐 우리말과 글을 지켰다. 한성, 이윤재 두 분은 옥에서 돌아가시고, 이극로, 최한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선생은 해방이 되면서 풀려나 학회를 재건하고 이 땅의 국어 교육을 다시 일으켰다. 마침 올해는 조선어학회 사건 70돌이 되는 해이다. 조선

김정숙
국제한국어교육학회장,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어렵다고 귀여운 아이우성을 치기도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 한글 학습의 용이성에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루 만에 한글 자모를 깨쳐 읽고 쓰게 된 것도 신기하게 여기지만, 한국어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면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천자문 한글 입력 방식에는 한글 자모의 창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 모음자 석 자 'ㄱ, ㅡ, ㅣ'가 결합되어 모든 모음자가 만들어지고, 'ㅇ'에서 'ㄱ'이 만들어지고 'ㅇ'이 나옵니다. 로마자 문자판과 비교해 한글 문자판이 가진 과학성과 간결성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글의 과학성에 환호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자산인 한글, 그 자질을 가진 문화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세경
배우, 한글 홍보 대사



566돌 한글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저에게 있어 한글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 한 글자 한 글자에 세종대왕의 노고와 염이 새겨져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한글 홍보 대사로서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 더욱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학회 사건은 항일 운동사의 기록한 자취이기에 올해는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 국어국문학회, 한국어교육학회, 국어학회 등 전국의 어문학술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념한다. 특히 어문학회들은 문자 논쟁에만 갇혔던 과거에서 벗어나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발족하고 선



열들의 국어 수호 정신을 계승하여 국제화 시대에 국어국문학의 통합 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오늘날 한국어는 희망과 위기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어 학습 바람이 뜨거워 21세기를 한국어의 세기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준다. 반면에 국내적으로는 언어폭력, 외국어 남용, 바속어의 범람으로 국어 환경이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위기 앞에서 지도자들은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받들고 국어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임을 깨달아 소통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국어 교육을 혁신하고 국민정신을 드높여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라고 강조한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오늘에 실천해야 한다. 국립국어원도 21세기를 한국어의 세기로 만드는 꿈을 갖고 한강의 기적이 아시아의 기적, 아프리카의 기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한국어의 희망을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시경
가수



566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한글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글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말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노래와 좋은 가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노랫말이 담긴 음악으로 한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서인국
가수



566돌 한글날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속 윤제의 구성진 경상도 사투리를 귀엽게 보아 주셨는데요. 지역마다 특색 있고 정겨운 사투리아말로 우리말의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말, 예쁘고 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장혁
배우, 한글 홍보 대사



한글 홍보 대사, 배우 장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글을 홍보하는 지리에 위촉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에 한국어를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촬영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로 소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고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한글의 생일인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어, '세종학당'을 통해 날개를 달다

'겨울 연가'나 '대장금' 같은 드라마에 이어 대중가요가 한류를 선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고용 허가제가 안정화되면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배우의 열기도 높아져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한국어 세계화 총괄 지원 기구로 '세종학당재단' 공식 출범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하여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학당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집근성 및 인지도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말의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종학당은 국외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원과 대학 등 전 세계 43개국에 9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세종학당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세종학당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학당 본부로서 각 세종학당에 교육 과정, 교원, 현지 상황에 맞는 교재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펼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우수 세종학당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를 매개로 하는 한국 문화 교류의 장인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중심축으로서 한국방송공사 KBS, 구글,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교육 내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이제 세계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배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육 대표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운영을 통해 오피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누리-세종학당은 올해 4월에 그 체제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개편하면서 한국어 교사들과 학습자들 사이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리-세종학당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므로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누리-세종학당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쉽고 재미있는 온라인 강좌 등 다양한 학습 도구와 내용을 제공하고, 교원들에게는 교실 현장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풍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나 교원 양성 과정을 제공하며,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원, 세종학당 운영자 모두가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통합 정보를 누릴 수 있는 통합 한국어 교육 및 학습 누리집이 바로 누리-세종학당이다. 한편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국립국어원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에 적용 가능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태그+특별 과정)'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의 여건에 맞는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 과정(기본 과정, 4등급+심화 과정, 2등급)'을 개발하였다.

2011년부터는 '세종한국어'라는 이름의 표준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세종한국어>는 기존의 범용 교재와는 달리 세계 각지의 세종학당에서 학습자의 요구와 교육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1~3권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고 올해 안에 4권이 개발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급에 해당하는 5, 6권과 각 단계별 교원용 지침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세종학당재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종학당은 향후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세종학당은 한류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에 대한 열기로 잇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류의 창으로 성장할 것이다.



● 세종학당 본포도(총 43개국 90개소)

566돌 한글날 한글 발전 유공자

한글 반포 566돌을 맞아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 열 분이 정부 포상을 받으십니다.

- 은관문화훈장** 콘체비치, 레프 라파일로비치 [Lev Rafailovich KONTSEVICH, П. Р. КОНЦЕВИЧ (러시아)]
- 보관문화훈장** 가네와카 도시유키 [兼若逸之 (일본)]
- 문화포장** 강은국 [姜銀國 (중국), 유영미 [Young-mee Yu Cho (미국), 엄 안토니나 [Em Antonina (우즈베키스탄)]
- 대통령 표창** 곽셀 튀르키쥬 [S. Gökseil Türközü (터키), 송황근 (대한민국)]
- 국무총리 표창** 김한정 (대한민국), 강성곤 (대한민국), 김응수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콘체비치, 레프 라파일로비치
 Lev Rafailovich KONTSEVICH, П. Р. КОНЦЕВИЧ
 러시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연구소 수석 연구원

콘체비치 박사는 1973년 세계 최초로 <출민정음> 해례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60여년 동안 한글 연구와 한국어 보급에 헌신적으로 활동한 분이다. '러시아 한국어 학자가 본 한글의 우수성' 등 약 3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고, 대학에서 한국어 문법과 발음을 강의하여 한국어 보급에 힘썼으며, <러시아 한국학 총서>의 주필로서 한국 문화 전파에 열정을 바쳤다. 지금도 고령高齡과 원목 눈 실명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끊임 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후학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문화포장
유영미 Young-mee Yu Cho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

유영미 교수는 세계 우수 대학에서 채택한 한국어 교과서 <Integrated Korean>을 비롯하여 총 14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28년간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연구한 분이다. 스탠퍼드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창설하였고, 럿거스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총괄하여 5단계의 언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미국 공립 학교 한국어 교사 자격 과정을 설립하여 한국어 교육의 기틀을 잡았으며, 미국 대학 입학 수능 평가 SAT 한국어 출제 위원장, 전미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책임자로서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문화포장
엄 안토니나 Em Antonina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외국어대학 교수

엄 안토니나 교수는 사마르칸트외국어대학의 한국어학과장으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보급 및 차세대 한국어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이다. 또한 사마르칸트외국어대학과 한국 대학 간의 지체결연 추진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양국 간의 교육 문화 교류 및 우호 친선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마르칸트외국어대학에 세종학당을 설치하여, 사마르칸트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보급하여 한국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
곽셀 튀르키쥬 S. Gökseil Türközü
 터키, 예르지예스대학 교수

곽셀 튀르키쥬 교수는 터키인으로서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 학위[한국어 교육]를 받은 분이다. 터키로 귀국한 후 2002년 신설된 예르지예스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다수의 논문 및 저서를 발표하고,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터키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보급에 왕성하게 활동하여 '한국어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예르지예스대학은 한국어 학과의 정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
송향근
 대한민국,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송향근 교수는 한국어 현장 교사, 한국어 교원 양성자,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연구자, 한국어 교육 정책 개발자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이종언어 학회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한국어 교육 분야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장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정착에 힘썼고,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으로써 세종학당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한국어의 해외 보급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
김한정
 대한민국, 미셀 드 몽테뉴 보르도 3 대학 교수

김한정 교수는 프랑스의 미셀 드 몽테뉴 보르도 3 대학에서 1986년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강의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분이다. 우리나라의 고대 시가인 향가 25수를 최초로 프랑스어로 번역하였고, 2012년에는 유럽 최초로 보르도의 프랑수아마진디고등학교에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개설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무총리 표창
강성곤
 대한민국,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라디오팀장

강성곤 팀장은 20년 이상 한국방송공사 KBS 아나운서실의 한국어연구부·한국어팀에서 근무하며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보급하는 데에 기여한 분이다. 표준 발음,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 말하기와 읽기 분야와 관련된 칼럼과 저서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공공 기관,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에 출강하여 표준어, 읽기, 화법을 지도하는 등 한국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
김응수
 대한민국, 나이로비 세종학당장

김응수 학당장은 케냐 나이로비 세종학당장으로서 케냐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첨단 산업을 소개한 분이다. 공공 예비역 대령으로 28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62세에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후 사비를 들여 나이로비에 무료 한국어 교실을 개설·운영하면서 아프리카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에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세종학당을 설치하였다. 특히 많은 케냐 학생을 한국으로 유학[대학교 2명, 기술 학교 1명] 보냄으로써 케냐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데에 숨은 공로가 있다.

한글, 고맙습니다

한국어 사랑이 뜨거운 요즘에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글날 아침에 '한글'이 갖는 가치를 알아보고, '한글'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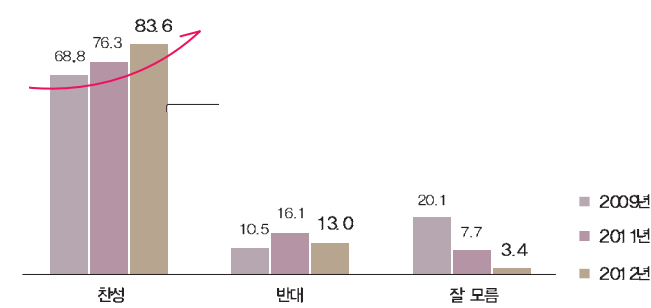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왜 중요할까요?

1991년,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논리에 따라 한글날은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5년에 다시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관련 행사 개최도 어려울 정도로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 83.6% 한글날 공휴일 지정 찬성

한글은 창제 의도와 과정, 반포 시기가 알려져 있는 문자이며, 애민 정신과 실용 정신, 그리고 자주정신이 담겨 있는 문자다. 곧 한글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의 상징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한 한류와 연계하여 볼 때,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로서의 한글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한글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고유 문화를 전파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2012년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1년 조사 결과인 76.3%보다 7.3%가 증가한 것이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성 여론의 증가는 우리 국민이 한글을 통해 한국인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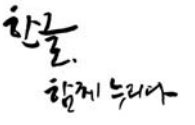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되새길 수 있어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다양한 문화 참여 활동과 여가 관광 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한글날이 공휴일이 될 때 확충되는 휴일 1일당 편익 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편익은 4조 6,09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민간 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8,442억 원,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18,330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한글날 공휴일 도입으로 일부 산업계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민족 문화의 정체성 확립, 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휴식 여가 활동 증가로 인해 노동 생산성 향상, 내수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공감할 것이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20여 년 전의 경제 상황과 현재의 여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고, 최근에는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국민의 가치관은 휴식 및 여가 활동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고, 휴가 사용 효과로 발생하는 긍정적 파급 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계 및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이강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우리 겨레의 영원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훈민정음〉해례본 서문에서 예조 판서 겸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는 말하였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을 초월하셨다.” 이 말은 결코 과장되거나 아첨하기 위한 빈말이 아니었다. 세종대왕은 재위 기간 중에 내치內治, 외교, 국방,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다.

세종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문화 사업이 1443년 12월에 창제된 우리 고유 문자 훈민정음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고유 문자 창제로 우리 겨레는 비로소 마음대로 자기 의사를 기록할 수 있는 표기 수단을 갖게 되었으며, 문자 생활은 한자나 한문으로 하고, 일상 언어생활은 우리말 구어로 해 오던 '이중 언어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어 고유 문자에 의한 문장어가 발달될 길이 열렸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새 글자를 창제하지마자,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과 세종의 여섯 대에 걸친 조상들의 큰 덕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글로 된 노래로 읊게 하였다. 1445년 4월 5일에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우리말 우리글로 된 총 125장의 노래와 이를 번역한 한시와 주석을 10권으로 완성하여 세종께 바치었다. 세종은 1447년 10월에 이 책 〈용비어천가〉 550부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편 세종대왕은 1443년 12월에 창제한 새 음소 문자의 제자 원리와 기능 등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1420년에 다시 설치된 집현전에서 맡았다. 집현전 학사들은 1446년 9월까지 3년에 걸쳐서 새 글자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하였다. 이 책을 〈훈민정음〉해례본이라 이름하였다. 책 〈훈민정음〉은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한문으로 되어 있고,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의편'과 이 예의편을 해설한 '해례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447년에 '예의편'만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주석을 달았다. 이를 '훈민정음 국역본' 또는 '언해본'이라고 한다.

'훈민정음'이라는 새 음소 문자는, 〈홍무정음〉, 〈고금운회거요〉, 〈황극경세서〉 같은 중국의 서적으로부터 중국 음운학에 관한 지식을 섭취하고, 1393년에 설치된 사역원 司譯院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의 언어 문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창제되었다. 15세기 중세 국어를 표기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글자 모양은 어느 글자의 계통을 이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으로 창제되었다. 이 글자는 창제된 이후 큰 변동 없이 순조롭게 쓰이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7,300만 우리 겨레가 쓰고 있다.

글 강신항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

모든 것의 뿌리, 말과 글

옛 어른들은 '말'과 '글'을 바로 쓰는 것이 질서를 세우고, 마음을 닦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이 바로 섰을 때 모든 것의 질서가 잡히듯 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과 '글'부터 다듬어야 합니다. 전병헌 의원님, 문용린 교수님, 강용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말'과 '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세요!

한글날 공휴일 추진 관련 법률안 발의한 전병헌 의원

언제부터인가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마음에서도 서서히 잊히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날에 대한 기념이 아닌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지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한글날 공휴일 추진'에 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0년 '한글날 공휴일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만나 보았다.

'한글날 공휴일 추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한글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한글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글은 현존하는 수천의 문자 가운데 현재 유일일과 함께 과정과 알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고, 한글이라는 우리글은 우리 민족 문화의 요체이며,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과 동등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을 기리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한글날 공휴일 추진의 필요성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글날은 1991년부터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2005년에 한글날이 국경일로 회복되었지만 공휴일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기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한글날을 공휴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발의를 통해 '한글'과 '한글날'에 대해 국민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한글'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그 위대함과 소중함, 그리고 우수성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우리에게 '한글날'은 조금이나마 '한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공감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날 공휴일 추진'에 관해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83.6%의 국민이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 중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가운데 한글날을 가장 먼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7.5%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우리 국민이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말이 튼튼해야 국민정신도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이 모두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느끼는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전병헌 |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인격을 완성하는 힘, 독서

'2012 독서의 해' 추진위원장 문용린 교수

2004년 정부가 실시한 독서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1년 내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독서 가문의 시대,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는 '2012 독서의 해' 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책 읽을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이자 40대에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교수. 그는 저서 《행복한 도덕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도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성취를 가능케 하는 지역 혁명》에서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하는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독서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용린 교수가 이번에는 '독서 전도사'로 나섰다. 바로 '2012 독서의 해' 추진위원장을 맡은 것. 그는 '독서야말로 교육과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한다. '독서의 해'를 통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문용린 교수는 앞으로 독서 문화가 정부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문용린 교수는 누구보다 독서의 힘을 잘 알고 있다. 한국 문학 전집과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는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다. 그는 독서가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준다고 말한다. 독서 문화의 발전을 꿈꾸는 문용린 교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교양과 상식을 높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용린 교수가 추진한 '독서의 해'는 올해가 지나면 끝나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 전국 방방곡곡에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독서의 해'를 바탕으로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문용린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깨달도록 해 주세요!

청소년 언어 전문가 강용철 선생님

청소년기 혹은 사춘기, 한때의 반항이라고 하기엔 '습관화된 언어폭력'이 심각하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강용철 선생님은 말한다.

"청소년의 말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 손에 쥐어 주는 것은 과거의 지시형 교육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라고 느끼고 고쳐 나가는 자정 능력을 길러 줘야 합니다." 강용철 선생님은 청소년 스스로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반성하는 것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왜 '습관화된 언어폭력'에 종속되는가? 습관화된 언어폭력의 원인은 주입식 교육과 불건전한 언어 환경이라는 주장이 사회 전반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언어폭력이 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강용철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희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나들이' 동아리를 조직했다. '서로 너 나 하는 두로 허물없이 트고 지내는 사이'라는 뜻의 '너나들이', 허물없지만 고운 말을 사용하여 친하게 지내보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올바른 언중이 되게 해 보자는 실험이고, 선배가 후배에게 좋은 언어 습관을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있었다. 학교 내에서 좋은 말을 쓰기 위한 캠페인을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진행해 보자는 것이다. 학교가 많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우리의 미래도 많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학생들의 잘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도와주고 인정해 주는 사회 풍조가 정말 중요하다. 그는 특히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권한이 존중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청소년의 습관성 언어폭력은 분명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잡는 주체는 학생들이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습관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충분히 주면 언어폭력 문제는 줄어든 것이라는 강용철 선생님의 믿음. 그것이 오늘도 그를 학교에서 고민하고 행동하게 한다.



강용철 |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말과 글, 세상을 움직이다

주시경周時經, 1876~1914 선생을 떠나 근대 국어학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말과 우리글이 없는 주시경 선생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짧은 생을 오로지 우리말과 우리글만 생각하며 보냈고, 그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말 연구는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서늘한 하늘 아래서도 그의 마음과 손끝을 거쳐 온 우리말과 우리글은 반짝이며 빛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업적을, 그가 다듬고 빛어낸 자랑스러운 한글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근대화를 이끌다

국어학자 주시경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을 떠나 근대 국어학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말과 우리글이 없는 주시경은 생각할 수 없다. 주시경은 짧은 생을 우리말과 우리글만을 생각하며 보냈고, 그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말 연구는 체계화될 수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말의 힘을 믿다

주시경은 <독립신문>의 창간과 함께 교열을 맡았고, 이를 계기로 '국문동식회'를 만들었다. '국문동식회는 회원들 끼리 새로운 철자법을 같이 쓰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이후에 우리말 정리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연구 모임인 국어연구학회로 발전하였다. 이 연구 모임은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언문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했지만 주시경 사후 해체되었다. 그러나 주시경의 제자들은 1921년 '조선어연구회' 이후 '조선어학회'로 개명하여 스승의 뜻을 이었다. 주시경은 1914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은 조선어학회는 일제 강점기 민족 문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어 정립 운동의 중추 세력이 되었다.

주시경을 열성적인 우리말 연구자로 만든 것은 그가 갖고 있는 투철한 민족주의적 언어관이었다. 주시경에게 있어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그 인민을 연락케 하고 동작케 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그는 민족 혹은 사회의 발전이 말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말의 힘을 믿었기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정리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말과 글이 결국 한 사회의 근본이 된다는 생각이 굳건했기에, 그의 연구는 우리말과 글을 정리하고 교육하는 실천적 활동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교육하기 위해 문법을 연구했고, 문법 연구의 결과를 국어 정리의 원칙으로 삼았다.

문자판과 철자법 원리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기할 것은 주시경의 마지막 저술인 <말의 소리>¹⁹¹⁴에 구조주의와 기술주의 언어학의 주요 개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음운론에서 음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고나'를 언급하였고, 부류에 해당하는 '씨나의 틀'에서는 형태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늦씨'를 언급하고 그 분석 방법을 보였다. 이러한 개념은 정교화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서구 언어학보다 수십 년 앞서 스스로 그 개념을 고안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주시경의 문법은 단순히 서구 문법의 틀로 우리말을 설명한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서구 문법의 틀에 전통을 수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어문법國語文法>¹⁹¹¹, <조선어문법朝鮮語文法>¹⁹¹³에서는 품사론과 문장론이 체계로 갖춰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법서들은 주시경의 연구가 문자와 철자에 대한 연구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로 도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결과물이다. 책의 제목이 <국문문법>에서 <국어문법>으로 바뀐 데에서도 그의 넓어진 언어학적 식견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국어문법>에 나타난 구문 분석 방법은 정교하고 체계적이어서 현대 문법학의 눈높이에서 보이도 감탄할 만하다. 이러한 탁월함이 있었기에 주시경 문법이 이후 우리말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우리말 교육을 위한 눈부신 활동

이처럼 연구와 교육에 온 힘을 바치면서도 주시경은 우리말 정리를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쳐 나갔다. 특히 일관성 있는 표기법이 수립되어야 혼란 없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태주의 표기법을 규범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1907년 조직된 국문연구소

의 연구 위원으로 참여하여 형태주의 표기법을 관찰시키고자 하여 다른 연구 위원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인해 이를 실현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태주의 표기법을 부활시켰고 이는 오늘날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주시경은 철두철미한 어문 민족주의자였기에 우리말 사용을 제약하는 일제와 타협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한일 병합 후 일제의 조선어 정책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계속했다. 특히 우리말 교육과 우리말 정리를 위한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다. 대한 제국 시기에 만들었던 국어강습소는 조선어강습원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우리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는 근거지였다. 이곳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 간 김두봉, 최현배, 신명균, 정철모 등이 배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조선총독부가 1911년부터 구습 조사의 일환으로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자, 그는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 편찬을 시작하여 1914년경 초고를 완성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사전은 출판되지 못했지만, 그의 뜻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결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탄압을 극복하고 사전을 완성하는 힘이 되었다.

글 최경봉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어학회 수난의 문화사적 의미

1942년 10월 1일 막바지 사전 편찬 작업을 서두르던 조선어학회^{사전의한글학회}의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검거된다. 이일로 광복이 되기까지 조선어학회는 활동이 중단되고, 사전 편찬 작업도 함께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다시 시작하여 1957년에야 마무리되었다.

19세기 말 이후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말과 글의 정비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특히 그동안 한자에 밀려 제1 문자의 지위를 빼앗겼던 한글이 주목을 받았다. 한글은 창제 이후 많은 언어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그 결과 사람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식 문서에 한글을 사용하려면 제각각인 한글 표기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나라에서 국문연구소를 두어 연구를 시작했지만 과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권을 상실당했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피지배 민족의 말과 글의 정비에 제한적인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의 말과 글을 정비하는 일은 민간의 몫이었고, 그 중심에 조선어학회가 있었다. 국권을 상실한 시기에 이 일은 단순한 언어 정비 사업이 아니었다.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이 필요한데, 이의 기초가 되는 언어를 정비하고 통일하는 문화 운동이었다. 문필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지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결과 한글 맞춤법 제정,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제정 등 우리말을 근대 사회에 맞게 정비한 중요한 성과들이 이때 나오게 된다.

언어 정비의 마지막 목표는 사전이다. 조선어학회에서 이룩한 앞선 성과들도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다.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을 맡기 전에도 사전을 편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끝을 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일제 지배 아래에서 사전 편찬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제의 우리말 탄압이 심해지면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사전 편찬을 서둘렀다. 그렇지만 편찬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광복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문화 운동으로서의 언어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근대적인 국어의 보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제가 조선어학회에 관여했던 33인을 검거한 것은 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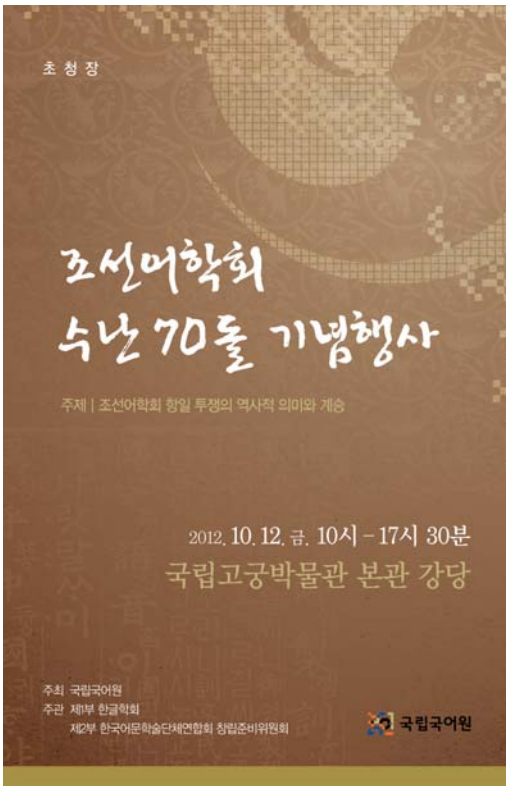


에 의한 우리말 탄압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일제 말기로 가면서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위해 우리 민족을 강제로 동화하고자 했던 일제는 점차 우리말 사용을 탄압하는 강도를 높여 간다.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우리말 신문은 폐간된다. 학교에서 우리말을 하는 학생들은 벌을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말을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섰던 조선어학회도 탄압을 피해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선어학회가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그나마 우리말을 지키는 구심점도 사라지게 된다. 교육이 되지 않는 우리말은 지상에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말이 사라지면 문화도 사라진다. 침으로 임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몇 년 계속되면서 우리말에는 많은 생애기가 생겼다.

그렇지만 일제의 우리말 탄압은 말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익힌 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나라 잃은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광복은 곧 우리말의 회복을 의미했다. 광복 이후 우리말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일어난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우리말을 지키다 수난을 겪은 조선어학회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리말을 보급하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조선어학회의 언어 정비 사업 성과들은 국가 언어 정책으로 수용되어 이후 우리 언어생활의 기준이 되었다.

글 조남호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사진 제공 한글학회



한글로 전해지는 감동, 문인을 만나다

살아가며 느끼는 사소한 감정들과 조금은 특별한 사건들, 그리고 즐거운 발상이 문인을 통해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문인의 글을 통해 낯선 삶을 엿보기도 하고, 때론 공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글로써 삶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자 '한글'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한글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소설가를 만나 보았습니다. 소설가 김영하님과 은희경님에게 있어 창작 그리고 소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김영하를 만나다

사상과 근육이 울퉁불퉁한 작가

'오빠가 돌아왔다'는 김영하의, 김영하에 의한, 김영하를 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빠가 돌아왔다'로 시작하는 그의 단편 소설의 제목이자, 그 작품이 실린 세 번째 소설집의 제목이자, 김영하의 신간이 나올 때면 부록처럼 따라 붙는 요란한 수식어다. 그러니까 김영하는 그냥 오빠인 거다. 우리가 아저씨보다 오빠에게 끌리는 것은 무책임함 때문이다. 책임 따윈 질 생각이 없다는 오빠의 뻔뻔함은 아저씨의 어설플 책임감보다 매혹적이다. 문학만큼이나 현실에서도, 열정과 모험은 안정과 친절보다 힘이 세다. 그리고 오빠는 재미있다. 김영하는 '강남스타일'을 비틀어서 자신을 '사상보다 근육이 울퉁불퉁한 남자'라고 했다. 그런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빠의 화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말이기도 하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작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동규와 제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작가, 즉 소설가는 둘 중에 어느 편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고통을 감지하는 사람 중 어느쪽. 그러니까 '회자'와 '김각의 수신계' 사이에서요.
김영하 _ 작가로 살아가면서 제일 놀라운 것, 혹은 기쁘면서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요, '작가적 유행'의 사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작가들 중에는 정말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민한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소결한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약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 주네(Lean Genie)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파렴치한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글을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게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제이나 동규는 둘 다 작가의 유형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이나니까요. 그런데 동규 같은 유형이 소설가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초월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단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현실을 초월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설이란 복잡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소설가에게는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설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소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초기부터 실생활의 언어를 소설 속으로 가져오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김영하 _ 제가 신인 때 어떤 말을 썼는데 담당 편집자가 그 말이 사전에 없으니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전은 작품에 쓰인 말들을 모아서 나중에 편찬하는 거예요. 지금 작가가 쓰는 말들이 말뭉치가 돼서 나중에 사전이 되는 거예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떤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사전에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 걸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전은 과거의 문학 작품을 추출해서 만든 건데, 그건 저보고 교과서에 있는 말만 가지고 소설을 쓰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느껴져요. 소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말줄 칠 수 없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좋은 소설이란 어떤 특정한 문장이 기억나지 않아야 한다고.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김영하 _ 책을 다 읽었는데 밑줄을 친 대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그 책을 사랑하게 될 때. 한 번도 멈춰 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걸린 대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남에게 요약하거나 발해하여 전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최고의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스트립쇼를 거부한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학적 언어와 일상적 언어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하 _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요. 둘 사이에 끊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있지요. 활자화되어서 고정되어 있긴한 글은 살아 있는 언어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필사가 습작 시기의 좋은 수단 방법이라는 생각에 반대해요.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말을 녹음해서 풀어 보라고 시킨 적이 많아요. 그 속에서 시작된 것을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와 시적인 건 다른데요. 시적인 것은 사방에 있죠. <강남스타일>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남자" 같은 부분이에요. 재밌잖아요? 저는 농담 삼아 '사상보다 근육이 울퉁불퉁한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그런 언어들을 문학 안으로 가져올수록 한국어의 가능성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해요. 왕따가 비속어였잖아요? 국립국어원에서 '집단따돌림'으로 쓰라고 했어요. 왕따라는 단어만큼 그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은 없어요. 골드미스를 뭐라고 하라고 했다더라. 어부처럼 바다로 그물을 던져서 살아 있는 말들을 계속 건져 올려야죠. 명에 이미 있는 것들이 안정적이고 편하긴 하지만요.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말을 많이 만들었다는 걸까요? 그런 게 필요하죠.

김영하에게 소설이란?
김영하 _ 아마도 칼 세이건(Kal Segan)의 말일 텐데, 정확하게는 없지만, 이런 말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내 생애에 우주를 전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낀다. 저와 소설의 관계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소설의 역사가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소설들이 있고, 제가 쓰는 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죠. 앞으로 남은 생애 안에 제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밤하늘의 어떤 흔적도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세계의 일부라는 것, 내가 그 작가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 그게 어떤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소설의 세계는 너무 거대해서 저는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할 거예요. 그게 기쁨 때가었어요. 광대무변한 이 우주와 나.

내가 김영하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제까지나 신작이 기다려지는 작가일 거라는 사실이다. 그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 내가 만난 김영하는 비유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비유가 끝난 것 같은 시점에도 또 다른 비유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나갔다. 그러므로 어떤 비유도 완료될 수 없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일은 꽤 이상한 기분이 들게 했는데, 나는 그가 소설로 던지는 끝나지 않은 질문들에만 익숙했던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읽고 생각했다. 제이는 영웅으로서의 생애를 살았는가. 영웅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현대의 영웅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위대하지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 김영하의 비유가 끝나지 않았듯 나의 질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공존하는 각각의 평행 우주다. 🍕

2012년 10월 23일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샘표, 마침표>
<http://news.korean.go.kr/online/>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 한사유 | 사진 강병권 | 감수 신형철

-
김영하 1968년 강원 화천 출생. 1995년 계간 <리뷰>에 <우물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등단. 소설집 <호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연애가 돌아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와 장편 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은 요>, <검은 꽃>, <빛의 제국>, <위스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이 있다. 동인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민해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수상.



내가 사는 삶이 내 소설의 방향을 이끈다

《소년을 위로해줘》가 나온 지 일 년이 조금 넘었는데 새 장편 <태연한 인생>을 쓰셨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선생님을로 하여금 이렇게 연달아 새 작품을 쓰게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은희경 _ 이렇게 장편을 연달아 쓴 건 처음이죠. 사실 《소년을 위로해줘》를 쓰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예전부터 쓰고 싶던 여자 기숙사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 기숙사에 삼 년 반을 살았거든요. 《소년을 위로해줘》를 끝내고 이걸 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어요. 지금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그 소재를 만나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마음이 다가와서 다급해지니까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인물을 창조하고 이야기를 짜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이 작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가 적었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이야기가 저절로 풀려 가는 게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끝내고 나니 이제는 좋아요.

스스로 작품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느끼세요?
은희경 _ 어떤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의해서 변주되는 것이겠죠. 친구가 많고 왓치카컬할 때의 소설이랑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나서의 소설이 다르고, 의무가 많을 때랑 이기적으로 내 것만 하겠다고 할 때가 또 다르고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당시 조건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한테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라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운 편인데 힘들 때도 나한테 의지를 안 하나까 슬퍼했어요. 반성이 됐어요. 객뚝하기만 한 게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녀나들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무 관계를 깔끔하게 만들려고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무렵에 《소년을 위로해줘》를 썼고요. 그걸 쓸 무렵에 주변에 친구가 많기도 했어요. 우선순위를 댔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유별나게 독특한 사람

은희경 소설의 매력 중 하나는 인물에 대한 묘사와 통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태연한 인생>에서 짧은 머리와 긴 머리의 차이를 묘사하며 둘의 매력도를 비교하는 장면 같은 것 말이에요. 어떤 인물이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희경을 만나다 영원히 상식적이지 않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소설가 은희경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기왕의 한국 문학에 존재하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낯익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낯선 자신을 '발명'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소설을 읽음으로써 나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인물들은 불행해 보였지만 그 불행은 견딜 만해 보였고, 그들은 많은 순간 비겁했지만 근사한 면도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꿈과 현실의 몽롱한 혼합처럼 보였다. 현실에서는 견뎌 내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인물도 은희경의 소설 속에서 만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돌이켜 보면 내게 은희경의 소설을 읽는 일은 '감정 교육'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은희경 _ 누가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나는데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안 만나본 사람이다.' 나도 그래요. 소설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 연구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호기심이 안 생겨요. 궁금한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이겠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흥미를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다 보면 그가 유별나게 독특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런 깨달음이 소설에 반영되고 독자들에게도 전달돼서, 독자들이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게 소설 속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창조한 인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
은희경 _ 자연인인 나는 재미있고 싶고, 편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릴정야요. 그런데 소설가로서의 나는 결핍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할까? 그래서 자연인인 내가 좋아할 만한 인물을 소설 속에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결핍을 주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주인공 모두에게 내 모습이 들어 있죠. 기본적으로 소설화 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잔혹하기도 한. 《소년을 위로해줘》를 쓸 때는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따돌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슬픔이 나왔고요. 청소년 때 데이터틀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게 간혹한 바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번 <태연한 인생>의 '요섭'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데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야비함 같은 게 표출된 것 같아요.

일상이 아닌 것을 창조해야 하는 자의 고독

이번에 <태연한 인생>을 읽으면서 새삼 은희경이라는 작가의 '이상한 화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냉소적이고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내우함과 비루함을 파헤치지만 그려면서도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냉소적인 화자가 소설을 끌고 갈 경우 비호감일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애뜻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은희경 _ 약한 데를 보여 주니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은 모두 결핍이나 고독 때문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섭도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어요. 작가인데 못 쓰고 있는 작가라서, 치명적인 상태니까 워든지 용서할 수 있는 상태

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있고 있는 면에 대해 썼기 때문이겠지요. <마이내리그>를 썼을 때도 그랬는데, 내 소설에 약한은 없어요. 한심한 사람은 있지만 나쁜 사람은 없죠. <마이내리그>를 썼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반어법, 이중 구조, 위약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내가 모자라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그려 놓은 것에 대해 꽤 반발하기도 했었어요. 내가 아우하려 한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 자체예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한국 근대사가 워낙 후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건데 혹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깔보느냐? 년 잘났냐?' 그러시더군요.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썼거든요.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쓴다 은희경에게 소설이란?

은희경 _ 이제 쓰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마그 때는 힘들지만, 마그할 원고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을 느껴요. 쓸 수 있는 인생이라 행복하구나 생각해요.

그녀는 직업실에서 서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일어난다. 마음이 들뜰 정도로 밝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녀가 직업실을 구할 때 내건 유일한 조건이었다. 한 다. 한때는 직업실의 벽에 좋아하는 작가들의 사진을 뽀뽀이 붙여 놓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동료들과 찍은 플라로이드 사진이 그 벽을 차지했다. 이제 그 벽에는 달력만이 붙어 있다. 나중에 그 벽에는 무엇이 붙어 있게 될지 그녀 자신도 궁금하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려내데 낭랑하고, 부서질 듯한데 선명하다. 그녀가 밥상을 채로 고개를 숙일 때는 상처받기 쉬운 여자가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 입꼬리를 울리며 미소 지을 때는 일순간 고독이 창밖으로 달아났다. 🍕

글 한사유 | 사진 강병권 | 감수 신형철

-
은희경 1959년 전북 고창 출생.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소설 <이중주>로 등단. 소설집 <타인에게 말걸기>,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심속>, <아름다운이 나를 떨시킨다>와 장편 소설 <새의 산방>,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그것은 꿈이었을까>, <마이내리그>, <비밀과 거짓말>, <소년을 위로해줘> 등이 있다. 문학동네소설상, 동서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동인문학상 수상.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우리말 편지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어 사랑' 이야기



방글라데시에는 '언어 수호의 날'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언어 수호의 날' 기념 행사 모습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2년 2월 21일,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에서 붉은 함성이 터져 나온다.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각각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분리된 시절, 서파키스탄은 동·서 파키스탄의 공용어를 우르두어라고 공표한다. 방글어를 사용하던 동파키스탄은 이에 반발하여 대규모 민중 시위를 벌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붉은 희생은 바탕으로 동파키스탄은 1971년 그들의 모어인 방글어를 지키는 나라, 즉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날을 국경일로 제정하였고, 유네스코에서도 2001년부터 이날을 '세계 모어의 날'로 지정하여 방글라데시 언어 수호 운동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2012년 2월 21일, 방글라데시에서 '언어 수호의 날' 60주년 행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이른 아침 라지 사하대학교 교정으로 향했다. 이미 교정은 사람들의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긴 행렬의 선두에는 방글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화환과 이날을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앞장섰고, 사람들은 맨 발로 예의를 갖추어 서 있었다. 푸른 잎만 무성한 흰화나무는 어느덧 화환으로 풍성해졌다. 김동이 밀려왔다. 그들이 왜 '언어 수호 운동 기념일'을 가장 자랑스러운 기념일이라 말하고, 그날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

어느 날 학생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언어 수호의 날 60주년 기념 화폐'였다. 이는 언어 수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화폐로 통용 화폐에는 존재하지 않는 '60타카'였다. 학생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며 단 하나뿐인 기념 화폐를 주었다. 모국어를 향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

글 박혜승 | 국립국어원 제6기 방글라데시 통신원



러시아

우리에게 Ё를 돌려주세요!

러시아 문자는 총 33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의 7번째 문자 Ё(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Ё는 한글의 '요'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걸까? 발음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는 표기법의 문제이다. 신문이나 인쇄 매체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Ё(ё)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E(е)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러시아에는 Ё와 관련된 뜻지 못할 사건들이 많은데, 러시아인의 4% 정도가 이와 관련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자면, 2009년에 블라디미르 요지코프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아주 클치 이쁜 일을 겪게 되었다. Ё 표기가 누락되어, 신분증에 성이 예지코프Ежииков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지코프Жииков와 예지코프Жииков가 동일 인물임을 증명해야만 했다. 또



이탈리아

별빛 아래에서 고전과 함께하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독서 캠페인은 각 시마다 지역적 특색과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기획되며 계절마다 진행 방법이 다르다. 각종 방송 매체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독서 게임, 독후감 쓰기, 책 읽기, 독서 평가전 등 개인마다 구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도시의 도서관과 열린 광장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책 읽기 행사 등을 펼친다. 특히 여름이 긴 이탈리아에서는 방학과 휴가를 맞이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밤마다 열린 광장에서 '별빛 아래에서'라는 행사를 벌인다.

이탈리아 중북부에 위치한 피렌체의 여름 독서 캠페인은 어린이와 어른, 시민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982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피렌체는 세계적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고, 도시 구석구석 역사의 흔적이 묻어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피렌체에서는 예술 역사의 흔적과 함께 도시 역사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내 중심가를 걷다 보면 기공식 좁은 골목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작은 판들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 문학의 아버지인 단테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 곳에 그의 작품인 〈신곡〉의 일부분을 새긴 판이다. 골목골목 돌벽에 붙어 있는 단테의 흔적에는 언어를 통해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려는 피렌체 시민의 열정이 배어 있다. 또한 그들의 생활 속에 고전 문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여름이면 피렌체에서는 '별빛 아래에서'라는 행사가 열린다. 7월 중순부터 약 2~3주 동안 저녁마다 도심의 주요 광장에서 연극배우, 예술인들이 단체,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등의 이탈리아 고전 작품을 별빛 아래에서 낭독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탈리아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뒤돌아본다. 올해에는 유명 코미디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일 밤 9시 30분에 신타크로체 광장에서 단테의 신곡을 11장부터 22장까지 읽었다. 로베르토 베니니는 1952년생으로 1999년 '인생은 이름 다워'라는 영화로 오스카 남우 주연상을 받은 국제적인 배우다. 그는 전 유럽과 미국의 주요 공연 장소에서 단테의



별빛 아래에서 고전과 함께하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독서 캠페인은 각 시마다 지역적 특색과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기획되며 계절마다 진행 방법이 다르다. 각종 방송 매체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독서 게임, 독후감 쓰기, 책 읽기, 독서 평가전 등 개인마다 구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도시의 도서관과 열린 광장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책 읽기 행사 등을 펼친다. 특히 여름이 긴 이탈리아에서는 방학과 휴가를 맞이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밤마다 열린 광장에서 '별빛 아래에서'라는 행사를 벌인다.

신곡을 낭독한 바 있다. 2008년 피렌체에서도 단테의 신곡을 낭독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표가 매진될 정도였다. 공연 실황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도 방송되었다. 올해 공연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피렌체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독서 캠페인은 시립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여름 독서 행사이다. 피렌체의 시립 도서관인 오블라테 도서관에서는 5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리브라이모'라는 도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목록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행사다. 곧 바쁜 독서 문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 측에서 매년 8개의 단어를 선택하여, 한 단어당 4개의 도서 목록을 정하여 독자에게 제시한다. 독자들은 도서 목록에 해당하는 책을 읽은 후에 도서관에서 제공한 도서 카드에 독후감을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캠페인 기간이 끝난 후에 당첨자를 추첨하여 상품을 준다.

이번 여름 독서 캠페인에서 제시한 단어는 가벼움, 친대 시트, 울동, 의식, 생명감, 미국, 자전거, 열정, 피, 바다, 동물'이다. 목록에 제시된 도서는 주로 2011년과 2012년에 발간된 국내외의 문학 작품들이다. 행사를 위한 32개의 해당 도서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며,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룹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피렌체는 긴 여름을 책과 함께 보낸다. 🌸

글 김향경 | 국립국어원 제6기 이탈리아 통신원



리투아니아

글자 익힘책 모으는 라트갈레인 이야기

라트갈레인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Latvia, 라트비아의 동쪽에는 라트갈레인이 라트갈레어를 사용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 시절 집중적으로 시행된 소련화 정책 때문에 라트갈레는 엄청난 탄압을 받는다. 전체 인구 중 러시아인이 무려 40%에 육박하게 되면서, 라트갈레어는 소멸할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라트갈레어를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 유리스 치불스(Juris Cibuis). 그의 모어 사랑 이야기를 들어 본다.

그는 나와의 첫 만남에서 '글자 익힘책'이 한 나라의 역사와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리적 상황 등 모든 것을 알게 해 주는 길잡이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해 주었다. 치불스 씨가 그런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가득 담

겨 있는 글자 익힘책을 수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어인 라트갈레어가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압박과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0년 규제가 느슨해진 때에 맞춰 유리스 치불스 씨는 라트갈레어에 관한 언어 입문서와 사적을 전문적으로 편찬하는 라트갈레어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글자 익힘책을 수집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게 된다. 장서의 양이 늘어나고 그의 독특한 취미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소장품들은 종종 여러 나라를 오가며 전시되었다.

그의 서재에는 라트비아에 본격적인 인쇄 기술이 들어오기 전인 1796년에 발간된 글자 익힘책도 있다. 그리고 우즈베크, 카자흐, 연해주 등 한민족의 후손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살아온 지역에서 발간된 한글 익힘책도 있다.

글 신익선 | 국립국어원 제6기 중국 통신원



중국

중국의 “안녕히 가세요.”

만만다 **慢慢**의 나라로 표현되는 중국에서는 헤어질 때에 "**慢慢走**"라고 말하여 조심스럽게 살피서 천천히 가라는 뜻을 상대에게 건네고, "**再见**"이라고 하여서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한다.

'신중하 만만다**慢慢**' 인사말
만짜우慢慢走 천천히 가세요, 조심스럽게 가세요

중국에서는 초대 받은 친구 집에서 나올 때, 상점에서 나올 때, 택시에서 내릴 때 등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 있을 때, 주인은 떠나는 손님에게 대개 "만짜우慢慢走"라고 인사한다.

'만짜우慢慢'의 표현적인 글자 뜻은 '천천히 가세요'이지만, 사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만만'은 단순히 '천천히'라는 뜻만은 아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의 의미가 더 강하다. 떠나는 이에게 건네는 인사



글자 익힘책 모으는 라트갈레인 이야기

겨 있는 글자 익힘책을 수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어인 라트갈레어가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많은 압박과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0년 규제가 느슨해진 때에 맞춰 유리스 치불스 씨는 라트갈레어에 관한 언어 입문서와 사적을 전문적으로 편찬하는 라트갈레어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글자 익힘책을 수집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게 된다. 장서의 양이 늘어나고 그의 독특한 취미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소장품들은 종종 여러 나라를 오가며 전시되었다. 그의 서재에는 라트비아에 본격적인 인쇄 기술이 들어오기 전인 1796년에 발간된 글자 익힘책도 있다. 그리고 우즈베크, 카자흐, 연해주 등 한민족의 후손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살아온 지역에서 발간된 한글 익힘책도 있다.

라트갈레인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라트갈레인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모어 사랑’ 이야기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 글을 쓸 때마다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한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이 소중한듯,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말과 글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계 각국의 통신원들이 전해 오는 그들의 모어 사랑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말 '만짜우'에는 가시는 길, 안전에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길 바라는 마음이 진하게 어리어 있다. 이러한 인사말은 '만만다'로 표현되는 중국 사람들의 느긋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매우 신중하고 느긋하게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적당한 때가 오기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가 비로소 행보를 보이는 중국인들의 '신중하 만만다' 성향이 인사말에도 나타난 것이다.

이슈움의 정서가 담긴 인사말
짜이젠再见 또 뵈세요. 다시 만나요

앞에서 살펴본 '만짜우慢慢走'가 떠나는 이를 향해 건네는 인사말이라면, 헤어질 때 쓰는 대표적인 인사말 '짜이젠 또 뵈'은 떠나는 자와 떠나보내는 자 모두가 함께 사용한다. 즉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를 통틀어서



글자 익힘책 모으는 라트갈레인 이야기

치불스 씨는 새로운 한글 익힘책을 구할 때마다 내게 책 제목과 발행 도시 등을 묻곤 하는데, 한국인인 나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글자들이 담긴 책을 보면 참으로 난감하다. 그가 그렇게 다양한 지역의 책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도움이 컸다. 현재 그는 300여 개의 언어가 담긴 7,300권의 책들을 수집했고,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그가 수집한 수백 권의 책들은 언어가 한 민족의 존재 자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에 더욱 값진다. 🌸

글 서진석 | 국립국어원 제2기 리투아니아 통신원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모어 사랑' 행사 모습

자주 하는 질문, 여기 다 모였어요!

‘되’와 ‘돼’의 쓰임, ‘한번’과 ‘한 번’의 구분, 언제나 알 듯 말 듯 헷갈려서 사전을 뒤져 본 경험들 있으시죠?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중합상담실 ☎1599-9979와 트위터@urimai365에서는 맞춤법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을 묻고 들어도 헷갈리는 질문들을 이곳에 모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명확하게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되지, 돼지?

‘되-’와 ‘돼-’의 쓰임이 헷갈려요.
“도와주면 {되지/돼지}할 때에는 무엇이 맞나요? 조○○

“도와주면 되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여 줄어든 것이 ‘돼’입니다. 예를 들어 ‘되-’에 ‘-았-’이 결합한 ‘되었-’은 ‘됐-’으로 줄어들고 ‘-어서’가 결합한 ‘되어서’는 ‘돼서’로, ‘-어요’가 결합한 ‘되어요’는 ‘돼요’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도와주면 되지”의 ‘되지’는 ‘되-’에 ‘어’를 포함하지 않은 ‘-지’가 결합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돼’로 줄어들지 않고 그냥 ‘되지’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되-’와 ‘돼-’는 소리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뒤에 ‘어’로 시작하는 말로 풀 수 있으면 ‘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요, 고양이예요?

‘고양이에요’와 ‘고양이예요’ 가운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

‘이 동물이 고양이예요’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예요’는 ‘이예요’가 줄어든 말로 ‘이 동물이 고양이이에요’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 동물이 고양이예요’와 같이 줄여서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받침이 있는 말에 ‘이예요’가 올 때에는 ‘예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연필이에요’는 ‘*이것이 연필예요’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양이’, ‘연필’과 같은 명사 뒤에는 ‘고양이이에요’, ‘연필이에요’처럼 ‘이예요’가 결합하지만 명사가 아닌 용언일 때는 ‘아니예요’처럼 바로 ‘-예요’가 결합합니다. 이 경우에 소리에 이끌려 ‘아니예요’로 잘못 적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데?

“집에 가는 데 두 시간이 걸린다”에서 ‘데’는 붙여 써야 하나요, 띄어 써야 하나요? 이○○

“집에 가는 데 두 시간이 걸린다”에서 ‘데’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의 ‘데’는 ‘곳’, ‘일’ 등을 뜻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와 같이 문장이 바뀌면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둘 다 ‘가는데’가 쓰이는 것 같지만 앞의 ‘가는 데’에는 의존 명사 ‘데’가 들어 있는 반면에 뒤의 ‘가는데’에는 의존 명사 ‘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존 명사 ‘데’가 들어 있는지 여부는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는 데(에) 두 시간이 걸린다”[㉠] “집에 가는데(*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집에 가는데(*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집에 가는데(*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는 “집에 가는 데에 두 시간이 걸린다”는 앞말과 띄어 쓰지만 결합할 수 없는 “집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의존 명사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경영 유지로써, 안정적 경영 유지로서?

“안정적인 경영 유지(로서/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에서 ‘안정적인 경영 유지로써’가 맞는지, ‘안정적인 경영 유지로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조○○

‘안정적인 경영 유지로써’가 맞습니다.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고 ‘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데 위 물음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수단’이 되므로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로써’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먹고 싶어하다, 먹고 싶어 하다?

“아이가 과일을 먹고 싶어 한다”에서 ‘먹고 싶어 하다’의 띄어쓰기가 궁금합니다. 이○○

“아이가 과일을 먹고 싶어 한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 하다’가 형용사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경우(예 **쁘-+-어 하다**→**예뻐하다**)에는 붙여 쓰지만 ‘**먹고 싶-**’과 같이 단어가 아닌 보조 용언 구성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먹고 싶어 하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버림받다, 버림 받다?

‘축복받다’는 붙여 쓰는데 ‘버림받다’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나요? 김○○

‘버림받다’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받다’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주로 동작을 뜻하는 명사에 붙어 피동의 뜻을 나타내지만(축복받다, 초대받다, 오해받다) 간혹 명사형에 붙거나(버림받다), 동작성이 없는 명사에 붙는(상처받다, 사랑받다, 벌받다)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적은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맞는 표기인가요? 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가십시오’의 ‘오’는 앞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요]로 소리가 나지만 ‘가십시오’는 ‘가+ㅏ+ㅓ+ㅏ+ㅓ+ㅓ’로 분석되는 만큼 ‘가십시오’로 형태를 밝히어 적어야 합니다. ‘오’는 “어떻게 할까요”처럼 말이 종결된 다음에 붙는 말이므로 생략될 수 있지만(어떻게 할까요→어떻게 할까), 위치럼 ‘오’가 쓰인 경우에는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안녕히 가십시오→*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되지”에서 ‘안되지’의 띄어쓰기가 틀렸다고 하는데 왜 틀린 것인지 알고 싶어요. 최○○

“그러면 안되지”의 ‘안되지’는 ‘안 되다’로 띄어 써야 맞습니다. ‘안되다’를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쓰는 경우는 ① 과일 농사가 안되다 ②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③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거야’와 같은 경우입니다. 물음의 ‘안 되다’는 단순하게 ‘되다’를 부정하는 뜻이므로 ‘안 되다’로 띄어 써야 합니다.

한번에 해결하다, 한 번에 해결하다?

{한 번/한번에 해결하다}의 ‘한 번/한번’은 띄어 써야 하나요, 붙여 써야 하나요? 박○○

‘한 번에 해결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한 번’이 횟수의 의미일 때 띄어 써야 하는데 ‘한 번에 해결하다’는 ‘두 번에 해결하다’, ‘세 번에 해결하다’가 가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횟수’의 의미이므로 띄어 써야 합니다. 한편, “한번 해 봐”처럼 ‘시도’의 뜻을 나타내거나,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처럼 ‘기회’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심 한번 고약하다”처럼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한번’으로 붙여 씁니다.

주근깨투성이다, 주근깨투성이이다?

‘주근깨투성이다’라고 많이 쓰는데 명사에 어미가 바로 붙어 이상합니다. ‘주근깨투성이이다’라고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한○○

‘주근깨투성이다’와 ‘주근깨투성이이다’ 모두 가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주근깨투성이+아+ㅣ+--다’로 이루어진 말로 ‘주근깨투성이이다’가 되지만 밑줄 친 서울격 조사 ‘아-’는 받침이 없는 말 뒤에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이 동물은 소이다→이 동물은 소다). 그러므로 ‘주근깨투성이다’도 가능합니다.

~하므로 ~에 이바지한다, ~함으로(써) ~에 이바지한다?

“~에 {참여하므로써/참여함으로써} ~에 이바지한다”라는 문장에서 ‘하므로써’, ‘함으로써’ 중 어느 것이 맞나요? 김○○

“~에 참여함으로써 ~에 이바지한다”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으로’가 결합할 수 있으면 받침이 있는 ‘참여함으로’가 되고, 결합할 수 없으면 ‘참여하므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가능하지만 “*봉사 활동에 참여하므로써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하므로’는 앞 문장이 ‘까닭’,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로 “창수는 선행을 실천하므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다”와 같이 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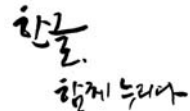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에서 ‘지 앞의 띄어쓰기가 달라 헷갈려요. 구분할 방법이 없을까요? 박○○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졸업한 지’와 같은 구성은 띄어 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와 바꿔 쓸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를 붙여 쓰듯이 앞말에 붙여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의 띄어쓰기도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를 붙여 쓰듯이 앞말에 붙여 쓴다고 기억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나일뿐이다?

“나는 나일뿐이다”의 ‘뿐’은 조사이니까 앞말에 붙여 써야 하지 않나요? 홍○○

“나는 나일 뿐이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나일뿐이다’는 ‘나+ㅣ+--다+뿐+ㅣ+--다’로 이루어진 말로 여가서 ‘뿐’은 관형형 어미 뒤에 오는 의존 명사입니다. 관형형 어미 뒤에 오는 명사류는 관형형 어미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일 뿐이다’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뿐’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는 “우리가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와 같이 명사 뒤에서 조사로 쓰일 때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 그 찬란한 역사

1446년 9월 유력
- <훈민정음> 해례본 간행. 10월 9일 한글날 제정의 근거가 됨.

1894년
- 고종 칙령 제8조에 따라 '언문 諺文' 명칭을 '국문'으로 고치고, 국문을 한문보다 표기의 근본으로 삼음.

1913년
- 조선광문회에서 최초의 현대적 국어사전인 <말모이> 편찬 사업 시작.

1940년
-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에서 발견.

1997년 10월
-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됨.>

1896년
- 최초의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 한글 대중화와 본격적인 띄어쓰기의 시작.

1925년
- 심익린 <보통학교용 조선어사전> 간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어사전.

1933년 10월
-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우리 국어학자의 힘으로 만들어 낸 최초의 어문 규범.

1942년 10월 1일
- 조선어학회 사건 발생. 일제가 <조선말대사전> 편찬을 문제 삼아 조선어학회 회원 33인을 투옥함.

1948년 10월
- 대한민국 국회,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10월
- 세종학당을 총괄 지원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 출범.

1527년
- 최세진의 <훈몽자회> 간행. 법례 '언문 자모'를 통해 현재 한글 자모 명칭의 기원이 드러남.

1895년
-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국어 교과서 <국민 소학 독본> 간행.

1913년 3월
- 주시경이 '배달말글몸음'을 한글로 바꾸면서 '한글' 명칭이 최초로 사용됨.

1940년
- <훈민정음> 해례본이 처음 우리말로 번역되어 <조선일보>에 실림.

1947년 10월
- <조선말큰사전> 제1권 을유문화사에서 간행.

2005년 2월
- <가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결성.

1443년 12월 유력
- '훈민정음'의 탄생. 최초로 우리 고유 문자를 갖게 됨.

1909년
- 국문연구소, <국문 연구 의정안> 작성.

1926년 11월 4일
- 조선어연구회, 최초로 '가갸날' 행사를 축하하고 기념식을 열.

1936년 10월
-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채택.

1946년 10월 9일
- '한글날'을 처음으로 정하고 공식 기념행사를 거행함.

1957년 10월
- 한글학회, <큰사전>이란 이름으로 우리말 대사전 6권 완간.

국립국어원의 발자취

1988년 1월 19일
-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 변화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설거지-설거지', '식월세-사글세' 등으로 변경.

1991년 9월 10일
- 외래어의 한글 표기 심의를 위한 '정부언문외래어심의 공동위원회' 발족.

1999년 10월 9일
-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52만 단어 수록, 국어 어문 규범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후 언어생활에 표준을 제시.

2004년 11월 11일
- '국어국립연구원'에서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국어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 확대.

2005년
- '국어 기본법' 제정 공포. 국어 정책의 법적 토대 마련.

2007년 12월
- '21세기 세종 계획' 최종 성과 발표. 세계적 수준의 국어 기초 자료와 전자사전을 구축.

2010년 3월 22일
- '가나다 전화'를 '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

2011년 12월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준 교재로 사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6> 완간.

1984년 5월 10일
-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가 학술원 산하 기관으로 출범.

1991년 2월 2일
- 언어생활 상담을 위한 '가나다 전화' 1599-9979 설치.

1992년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및 재외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1992년~2012년 매년 실시.

2006년 12월
- '제1차 국어발전기본 계획' 수립 2007~2012년.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

2008년 10월 8일
-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인터넷 사전 공개.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해짐.

2010년 12월
-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개최. 세계 언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주제로 9개국 10명이 발표.

1991년 1월 23일
- 문화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 설립. 국가 어문 정책 연구 기관 탄생.

1991년 12월
- 우리말 화법의 표준을 담은 <우리말의 예절> 발간.

2000년 7월 7일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고시. Cheju 제주 -- Jeju, Pusan 부산 -- Busan으로 변경됨.

2005년
- 청각 장애인을 위해 6,800여 개의 수화를 표준화한 <한국 수화 사전> 발간.

2008년 8월 15일
- <훈민정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판 발간 2008년~2010년.

2012년 10월 9일
-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가갸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1단계 결과 발표.

1986년 1월 7일
- <외래어 표기법> 제정.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및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7개 언어 표기법이 마련됨.

1992년 5월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개설.

2004년
- 사라져 가는 지역의 언어를 보전하기 위해 10년 계획으로 '지역어 조사' 사업 시작 2004~2013.

2004년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다듬은 말을 선정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www.malteo.net 누리집 개설.

2007년 10월
- '디지털한글박물관' www.hangeulmuseum.org 개관. 한글 관련 문헌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됨.

2011년 8월
- 짜장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비표준어 39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